



Vol. 41 2017. 12. 31.





2등 | 중앙도서관 - 강민지(철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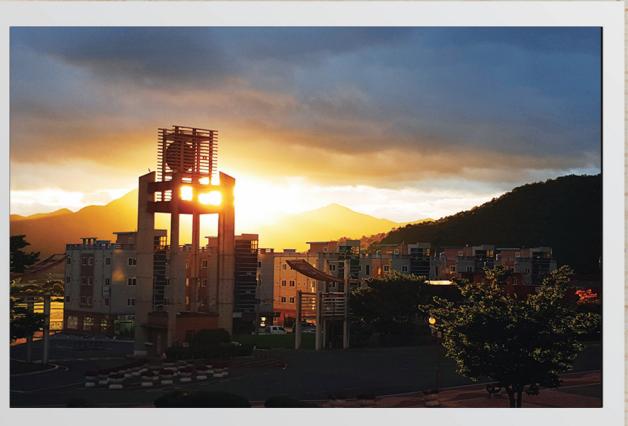
2등 | 주말 - 김현수(약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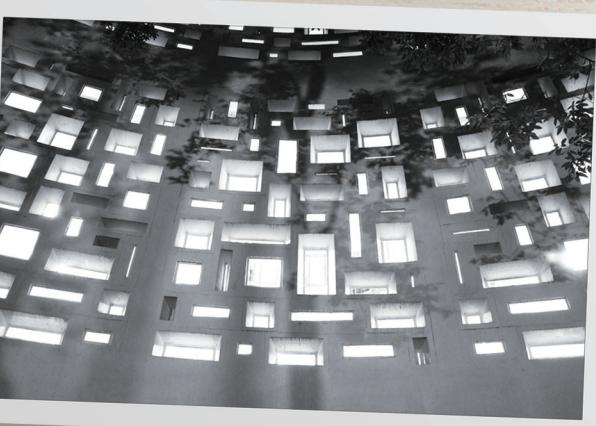
3등 | 기숙사로 향하는 길 - 김명훈



3등 | 생활대에서 바라본 길 - 오소민(의류학과)



3등 | 비온 뒤 밀양 캠퍼스 - 안효은(식물생명과학과)



3등 | 빛의 조각 - 신지인(국어국문학과)



COVER STORY

2017년 9월 ~ 10월

“부산대, 나만의 핫 플레이스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작 28점을 선정하였다. <효원 in 도서관> 제 41호에 실린 사진은 사진공모전의 우수작 28점 중 일부로, 우리 대학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직접 활용한 사진들이다.

표지 | 1등 비오는 날 정문에서 김규빈(화공생명공학부)



3등 | 금정회관에서의 힐링 - 진정민(조경학과)

효원 in 도서관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 08 특집 기사 취향대로 즐기는 부산지역 이색 북카페 소개
- 10 책, 감동을 나누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추천도서
- 12 교수의 서재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 14 아름다운 라이브리 <2017> 문학기행 다녀왔어요
- 16 책과 문화 <알쓸신잡2> 잡학박사들의 책
- 18 통계로 보는 도서관 2017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로 보는 도서관
- 20 #발견 #이책 꼭꼭 숨어있는 보석같은 책을 소개합니다.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상금 발행일 2017. 12. 31.
편집 강승일, 김송아, 박선화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onbin9@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그뤠잇~! 모르면 스튜핏~!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해 도서관 홈페이지 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 꼭 알아두어야 할 4종의 도서서비스를 소개합니다.

01 희망도서신청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다면 희망도서 신청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My Library](#) > [자료이용안내](#) > [희망도서 신청](#)

정확한 도서정보를 아는 경우엔 [직접신청]을, 정확한 도서정보를 모를 경우엔 [출판물 검색&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서의 경우 보통 2주, 국외서의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나면 신청하신 책이 도서관에 배치되게 됩니다.

도서 신청 시 자료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꼭!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별 연간 신청 제한 금액(국내서 / 국외서 포함) |



교수
2,000,000원



시간강사
1,000,000원



대학원생(석·박사 포함)
600,000원



학부생
400,000원

02 우선정리신청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 검색 시 도서상태가 정리중인 상태로 대출을 못하는 경우 우선정리신청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욱더 빨리 도서를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 정리중 상태는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 도서정보를 도서관 전산에 등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 [소장자료 검색을 통해 도서 상태\(정리중\) 확인](#) > [소장정보의 부기기능에 있는 우 버튼 클릭](#)
※ My library - 개인정보관리에서 연락처, 이메일 반드시 입력

순번	등록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기기능
1	W397743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WM 621.319 G566p6	경리중			

1인당 3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우선정리가 완료된 도서의 경우 대출 가능 연락(이메일 및 SMS)을 받으면 중앙도서관 1층 대출데스크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 가능 통보 후 대기기간 : 3일(통보 당일 포함)

※ 매일 1회 처리 : 오전 10:00 기준 신청자료는 당일 처리, 이후 신청자료는 다음 날 처리

※ 희망도서 신청으로 구입된 도서는 희망도서신청자 본인만 우선정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if you know, Great~!
if you don't know, Stupid!

We introduce library services that can be used in the librar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rovides users with various library services on the website.

01 Request a Purchase

If the books you need are not held, you can request for those books to be purchased.

[Log-in to PNU Library](#) > [My Library](#) > [Material Use Request](#) > [Purchase Request](#)

if you know the exact information of book, please use [request for purchase], otherwise, please use the search for [publication & application] menu.

Domestic book usually takes two weeks to be kept on library, and international book takes more than a month. If the books requested for purchase are deemed unsuitable for the library, the request may be denied.

Before making a request, Please make sure whether the book is in the library or not.

| Individual application limits amount per person (Including Domestic book / Foreign book) |



Professor
2,000,000(won)



Time lecturer
1,000,000(won)



Graduate students
(including master and doctor)
600,000(won)



Undergraduates
400,000(won)

02 In-Process Materials Request

When the desired book is obtained by the library but not available yet, you can submit an 'In-Process Material Request' so you can use the book as soon as possible.

※ Processing status means after purchasing, librarian do data processing on system.

[Log-in to PNU Library](#) > [Search & View Details](#) > [Holding](#) > [Additional 우](#)

순번	등록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기기능
1	W3977433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단행본	SWM 621.319 G566p6	경리중			

There are three requests you can submit at once. You will be notified of processed materials by E-mail or SMS. It will be available to borrow at the library desk on the 1st floor of the central library.

※ After notice, you need to borrow it within 3 days.

※ If you make a request by 10 a.m., your request will be processed the same day. After then, it will be the next day.

※ A purchased book by request is only available for the user who asked to purchase it to make a In-Process Materials Request.

03 캠퍼스간 자료대출

소속된 캠퍼스 도서관에 원하는 도서가 없거나, 모두 대출중이라면, 캠퍼스간 자료 대출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타 캠퍼스의 도서를 요청하신 소속 캠퍼스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가기능
K3186363	의생명과학도서관 4층 단행본:DDC	MDM 813.36 등620B한 c.5	대출가능			

신청 후 대출까지의 소요시간은 3일(캠퍼스간 자료 이동은 “월”, “수”, “금”)이며, 13:00 이전 신청 자료는 당일 접수, 13:00 이후 신청 자료는 다음날 접수 되게 됩니다. 대출 가능 연락(이메일 및 SMS)을 받으면 캠퍼스간 자료대출을 신청한 도서관에서 대출하시면 됩니다.

중앙도서관(부산캠퍼스) 1층 대출/반납데스크(051-510-1308)
의학정보검색실(아미캠퍼스) 2층 대출/반납데스크(051-240-7709)

의생명과학도서관(양산캠퍼스) 1층 대출/반납데스크(051-510-8137)
나노생명과학도서관(밀양캠퍼스) 4층 대출/반납데스크(055-350-5211)

※ 대출 가능 통보 후 대기기간 : 3일(통보 당일 포함)

04 보존서고 신청

검색하신 도서의 소장위치가 새벽별도서관 보조서고일 경우 대출을 원하시면, [보존서고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보존서고에 위치한 도서는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출판년도가 오래된 도서입니다.



등록번호	보존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가기능
K3415350	B331752	새벽별도서관 3층 보존서고	LDM 808.8 세140 29	대출가능		불어불문학과	

※ 대출 가능 통보 후 대기기간 : 3일(통보 당일 포함)

※ 매일 1회 처리 : 오전 10:00 기준 신청자료는 당일 처리, 이후 신청자료는 다음 날 처리

신청 후 대출 가능 연락(이메일 및 SMS)을 받으면, 새벽별도서관 1층 대출데스크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03 Inter-Campus Loan

If materials are held at a remote campus, you may check them out using the inter-campus loan service.



등록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가기능
K3186363	의생명과학도서관 4층 단행본:DDC	MDM 813.36 등620B한 c.5	대출가능			

The time required to apply for the loan after the application is 3 days(the transfer between campuses is “Monday”, “Wednesday”, “Friday”)
Applications before 13:00 will be accepted on that day and applications will be accepted the next day after 13:00.

You will receive an E-mail or SMS notification when inter-campus arrives, and are being held for you at your pickup location.

Central Library(Busan Campus)
Medicine & Life Science Library(Yangsan Campus)
Medical Information Search Room(Ami Campus)
Nano & Life Science Library(Miryang Campus)

1st Floor Check out/ Check in DESK(051-510-1308)
1st Floor Check out/ Check in DESK(051-510-8137)
2st Floor Check out/ Check in DESK(051-240-7709)
4st Floor Check out/ Check in DESK(055-350-5211)

※ After notice, you need to borrow it within 3 days.

※ If you make a request by 1 p.m., your request will be processed the same day. After then, It will be the next day.

04 Storage Materials Requests

A ‘Storage Materials Request’ can be used when books are available at a Preserved Resource Room that you are not allowed to enter.

Preserved Resource Room keeps old books, special collection materials, rare books and it's available through reservations.

If the material you need is located in SaeByeokBeol Library, Click [보] button on the PNU Library website.



등록번호	보존번호	소장위치	청구기호▲	도서상태	반납기한	기증자	부가기능
K3415350	B331752	새벽별도서관 3층 보존서고	LDM 808.8 세140 29	대출가능		불어불문학과	

If you get a SMS message or E-mail permission, you can visit the Circulation Desk at SaeByeokBeol Library to borrow the book.

※ The Library keeps reserved books for only 3 days.

요즘 핫한 북카페
어디까지 가봤니?

BOOK CAFE

취향대로 즐기는 부산지역 이색 북카페

치맥? 피맥? 이제는 책맥! 책과 술이 있는 북카페

북 : 그려움



위치 부산광역시 진구 전포동 673-5 2층

이용시간 매일 13:00 ~ 22:00(비정기적 휴무일이 있으며, 최소 2주전 공지)

홈페이지 <https://bookgroum.modoo.at/>

북카페 북그려움은 서면 엔씨 백화점 뒤편 공구상가쪽에 자리하고 있는 이색 북카페다. 웬지 수줍게 책소개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북그려움”이란 카페 이름에 워트가 가득하다. 이곳에서는 보통 서점에서는 보기 힘든 작은 출판사의 책들이 많다. 또 책마다 주인장이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리뷰를 읽는 재미도 쓸쓸하다. 북카페 한 캔에 자리한 책장을 북그려움 맨션이라고 하여 이용자들에게 책장 한 칸을 대여해주기도 하며 북그려움 약국이라는 타이틀 아래 독서치료(Bibliotherapy)를 위한 책을 처방해주기도 한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영화모임 북그부끄, 독서모임, 백일장, 사람책을 만날 수 있는 Jobs러움을 비롯 서(書)개팅이라는 책을 매개로 한 만남까지 주선한다고 하니 올 겨울 옆구리 한켠이 시린분은 꼭 방문해야할 성지임이 분명하다.

사진 내용 및 출처

북그려움 홈페이지 <https://bookgroum.modoo.at/>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allgi0070/221077673598>

새로운 취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

이터널 저니



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안로 268-32

이용시간 평일 10:00 ~ 21:00 / 주말 09:00 ~ 21:00

홈페이지 <http://theananti.com/kr/cove>

기장 힐튼호텔 아난티 코브 내 위치한 “이터널 저니”는 삶의 일부분인 여행, 철학, 인문, 식음, 예술에 대한 다양한 책과 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지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한 공간이다. 아난티 타운에서 가장 큰 500여평의 규모로, 특정 주제들에 대해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분류된 책장, 한사람의 서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 구성, 음악과 치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 새롭고 다양한 공간속에서 책의 산 사이로 펼쳐지는 지적인 즐거움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해외원서, 한정판 도서, 책 자체가 예술품인 디자이너 북 등 이터널 저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보물같은 책들을 통해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 콘텐츠를 접하며 자신만의 취향, 감성, 라이프스타일을 찾을 수 있다.

사진 내용 및 출처

이터널 저니 홈페이지 <http://theananti.com/kr/cove>

이터널 저니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eternaljourney.life/>

북카페는 책이 있어 좋다. 언제 가도 편안한 공간, 편안한 음악, 그리고 함께 공간을 채워 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든든하다. 겨울을 지내는 우리에게 따뜻한 커피 한잔과 훈훈한 도서 한권은 소중한 선물이다.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책도 보고 이색 경험을 할 수 있는 부산지역의 다양한 북카페를 소개한다.

설록홈즈의 집에 가다

김성종 추리문학관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2동 1483-6

이용시간 09:00 ~ 18:00

홈페이지 <http://www.007spyhouse.com>

전화번호 051-743-0480

“추리문학관”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달맞이 언덕에 위치해 있다. 추리소설의 매력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1992년 추리문학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김성종 추리문학 전문작가가 설립한 국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공간이다. 지상 5층으로 50,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위대한 문호들의 진기한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달 첫째, 셋째 수요일에는 2009년에 결성된 “추리문학관 독서클럽” 회원들과 함께하는 독서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외에도 소설 창작교실, 영화감상 등 이용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추리소설 매니아라면 꼭 가보아야 할 공간이다.

사진 내용 및 출처

김성종 추리문학관 홈페이지 <http://www.007spyhouse.com>

문화포털 공감 리포트 <http://www.culture.go.kr/culture/themeView.do?seq=579>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가득한 북카페

스윗 패턴즈



위치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 157번길 22

이용시간 11:00 ~ 23:0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lgharc22>

전화번호 051-611-2227

북카페라고 책만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한 스윗패턴즈는 빈티지하고 모던한 아이템들이 카페 곳곳에 놓여져 있는 볼거리가 풍부한 북카페이다. 거기에 베스트셀러 위주의 아무렇게나 비치되는 책들이 아닌 카페 사장님이 직접 심사숙고해서 고른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비치되어 있어 북카페 특유의 느낌이 살아있는 곳이다.

또한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그냥 지나치지 않은 익살맞고 귀여운 소품들은 모두 판매하는 상품들이라고 하니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는 경우 지름신의 강림을 막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책들과 예쁜 소품들이 이루는 하모니가 궁금한 당신이라면 한번쯤 꼭 방문해 보아야 할 공간이다.

사진 내용 및 출처

스윗패턴즈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lgharc22>

“도서관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싶은 도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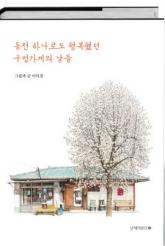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 추천 도서”

도서관에서는 매주 사서추천도서를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사서들이 직접 책을 읽고 효원인과 공감하고 싶은 도서를 통해 책으로 채우는 감동을 더해보기 바라며, 이번호에서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사서추천도서” 12권을 소개한다.



9월 1주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



이미경 / 남해의 봄날 / 2017 / 205P.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최민영

저자가 직접 그린 구멍가게의 그림들과 짧은 에세이들로 구성된 이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면 금방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그림이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글 자체도 어렵지 않게 술술 읽히는 편이다. 잠시라도 쉬어 가고 싶을 때, 마음 따뜻한 그림을 감상하고 싶을 때라면 이 책으로 쉬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9월 2주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 민음사 / 2016 / 190P.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최민영

같은 82년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제목의 끌림으로 선택한 책이다. 김지영씨의 일상을 완벽하게 재현하면서 한국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이 과거로부터 진보된 것이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9월 3주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



알랭 드 보통 / 청미래 / 2010 / 279P.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장향자

알랭 드 보통의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들”은 일상의 낡음을 떨쳐내고 더 진보하는 삶, 늘 변화를 꿈꾸는 삶이어야 한다는 자기암시를 되뇌게 하는 책이다. 불안과 모호함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가끔은 진지함도 농담처럼 던지듯 위대한 일상을 만드는 삶의 지침서로서 이 책을 추천한다.

9월 4주

경호! : 다람쥐의 정신, 비버의 방식, 기러기의 선물



캔블랜차드, 셀든 보울즈 / 21세기북스 / 2016 / 177P.
추천사서 | 정보개발과장 유경종

“경호! : 다람쥐의 정신, 비버의 방식, 기러기의 선물”은 캔 블랜차드, 셀든 보울즈가 지은 자기계발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의 이야기는 페기싱클레어가 누구에게나 내재해 있는 열정을 어떻게 이끌어내고 나아가 더 큰 힘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폐쇄의 위기에 있는 공장을 최고의 공장으로 이끌어 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10월 2주

깊이에의 강요



파트리크 쥐스킨트 / 열린책들 / 2000 / 100P.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남기홍

“깊이에의 강요”는 한 유망 예술가의 작품에 대해서 어느 비평가의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는 한마디가 어떤식으로 유명한 예술가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삶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경쾌하면서도 치밀하게 그려내는 파트리크 쥐스킨트 문학의 묘미와 깊이를 이 책에서 느껴보길 바란다.

10월 3주

보통의 존재



이석원 / 달 / 2009 / 490P.
추천사서 | 행정지원팀 손성동

이 책의 끝에서 말하는 글쓰기에 대한 방법은 글쓰기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움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과 더불어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읽는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나와 같이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다.

10월 4주

스페인 너는 자유다



손미나 / 웅진지식하우스 / 2006 / 338P.
추천사서 | 기획홍보팀 강승일

책은 아나운서로 유명한 손미나가 낯선 땅 스페인에서 1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하며 느낀 점을 적은 여행 에세이 책이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도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1월 1주

다산선생 자식경영법 : 전방위적 지시 경영인 정약용의 치학(治學) 전략



정민 / 김영사 / 2006 / 612P.
추천사서 | 전산지원팀 류준정

저자인 정민 교수는 다산의 독서와 저작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산에겐 독특한 학습법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저자는 다산의 학습법은 정보판단과 지식 편집의 탁월성에 있다고 보고 “자식경영법”이라 명명하였으며 과학적인 논리로 그 핵심과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11월 3주

재즈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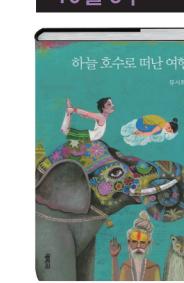


이종학 / 새로운사람들 / 1994 / 300P.
전산지원팀 정개수

이 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재즈 뮤지션들의 일화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1920년대 박밴드 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의 퓨전의 장르까지 해당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즈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하고 있으며 마지막 부분에는 저자의 취향이 담긴 추천 재즈 음악들을 소개하고 있다.

책,
감동을 나누다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 열림원 / 2015 / 265P.
추천사서 | 행정지원팀 장덕수

마음이 답답할 때 아무 데서나 펼쳐놓고 읽어도 위안이 되는 책들이 있다. 틀에 박힌 일상 생활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읽을거리로 또한 이 한 권의 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언젠가 인도로 갈 기회가 된다면 떠나기 전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기를 적극 추천한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과 테마만들기



할 스턴, 데이빗 댐스트라, 브래드 윌리엄스 지음 / 애이콘 / 2013 / 528P.
추천사서 | 전산지원팀 김왕종

이 책은 직접 개발하고, 플러그인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방법을 알려준다. 그리고, 워드프레스의 개발 사상과 코어(Core)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도서라고 할 수 있다. 워드프레스 역사, 프라이버시 처리, 소셜미디어 연동 등 기술의 철학적인 생각들도 함께 다루고 있어서 지겹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무라카미 하루키 / 열림원 / 2000 / 342P.
추천사서 | 전산지원팀 박경석

스마트한 세상에서 벗어나 시간이 멈춘듯한 고요한 ‘세계의 끝’과 하루키 특유의 유머와 쿨한 등장인물의 대사, 음식과 재즈, 위스키 이야기가 잘 버무려진 ‘하드보일드 원더랜드’로 들어가 보길 추천한다. 어쩌면 자의식에 관한 철학적인 질문에 어렴풋이 답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금 독어교육과 교수

나의 서재를 공개합니다

자신이 저술한 책을 하나하나 채우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수라면 그가 읽은 책들은 얼마나 많을까? 아니, 교수이기 이전부터 여태까지 읽은 책들은 무엇이 었던가? 그리고 앞으로 읽을 책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본다. 어쩌면 쓰질데기 없는 물음을 통해 “교수의 서재”라는 허상과 실상을 되새김질하고 싶다. 하나, 이것과는 다른 근본적인 회의가 먼저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 다른 아닌 ‘독서’가 갖는 유용성과 무용성 때문일 것이다.

1980년대 독일 유학시절 첫 경험이 떠오른다. 필자가 1970년대 초 대학생 시절에 갈구했던 청춘과 낭만의 동경은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비롯되었다는 세 미디의 글이다. 실제로 그곳을 방문하여 학생감옥 (Studentenkarzer)까지 들여다보았다. 무릇 대학생이라면,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명의 사람을 만나고, 만 잔의 술을 마셔라.” 즉 ‘학문’과 ‘인간’ 그리고 ‘낭만’을 기리는 상징적인 표현이자, 실천적 가치의 함의적 권유였으리라. 비록 오랜 세월을 거쳤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유용할까. 작은 결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위의 세 가지 가운데 “만 권의 책”을 필자라고 해서 다 읽을 수는 없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글귀가 있다. 바로 “남아필독오거서 男兒必讀五車書”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독서의 양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다. 나로서는 균형 잡힌 독서의 다양성에는 한참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한 여유나 실천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살기 바빴기 때문이다. 직업으로서 교수의 책 읽기는 필수불가 피하지만, 인간이고 싶은 노력과 낭만을 기리고 추구하려는 독서는 늘 일상의 바램을 비켜가기 일쑤였다. 현실은 그만큼 수많은 핑계거리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기에 연구실의 서재에 빼곡히 채워진, 아니 그간 쌓아두기만 하고, 읽히지 않는

책들에겐 미안함이 생긴다.

지도교수 베버(Dietrich Weber)를 만나기 위해 그의 연구실에 들어섰을 때, 첫인상은 몇 권의 책들만 있을 뿐 소박한 휴식처처럼 보였다. 서재의 활용은 소속 학과의 서가에서 그리고 도서관에서 이루어 진다고 했다. 하나, 교수의 집을 방문했을 땐 복도며 거실의 서재를 온통 채운 만 권(?)이 넘어 보이는 책들을 보고서야,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서재가 대학과 가정을 오가면서 아우러진다는 사실이 내겐 인상적이었다. 한 편으로는 부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림없는 현실이었다.

돌이켜보면, 한글을 알고부터나서 읽은 책의 양은 글쎄 알 수 없다.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영어와 독일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읽은 독일어와 영어 원서의 양도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구를 위한 전문 서적의 양이 일반서적보다 적을 수밖에 없었다. 나의 서재를 메우고 있는 서적은 물론 독일어 문학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에 뜻지 않게 한국어 서적 역시 거의 대등하다. 고등학교 시절 국어 선생님이 나에게 해준 충고, 즉 “한국어를 잘하려면, 외국어의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충실히 실천했는지는 모르겠다. 해서 전임강사 이전부터 시작한 비평가 모임의 그룹스터디와 비평전문계간지 <<오늘의 문예비평>>의 활동에서도 외국의 문학적 대체될 미래가 바로 지금의 과제는 아닌지. 이전처럼 책을 읽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의 임무가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 서재의 무용성까지 허여 독일어 원서보다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렇다보니, 나의 연구실 서재는 외국문학의 전공자로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들의 결과물인양 갖가지 책들로 어울려져 있다. 서로 다른 문학의

경계인이다. 어느 한쪽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어중 개비가 아닐까 … 게다가 문학연구방법론이라는 전공 때문이 아닐까 … 그럴싸한 논리와 논거를 확보하려는 책들 가운데는 문학 이외의 심리/정신 분석/철/역사/물리학 등과 관련한 책들이 이곳 저곳에 떡 버티고 있다. 하나, 이제는 내년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 탓인지,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서재에 대한 회상이 이번 원고청탁을 받고나서 더욱 선명하게 떠오른다. 캠퍼스 맨 위쪽에 위치한 제2사범관 나의 연구실은 그간 쑥 캐버린 나무들로 둘러 쌓여있다. 대부분 적막한 시간들로 채워지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나만의 온전한 학문적 개인적 자유가 남긴 흔적은 마치 정물화 같다고나 할까.

교수의 본분은 교육과 연구이다. 이를 위한 서재의 활용은 지적 호기심에서부터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거나 심화되었다고 본다. 때문에 30년 넘게 연구실 서재의 주인공들은 많이도 바뀌었다. 그간 몇 백 권의 책을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책들로 다시 채워지기도 하면서, 학술회의 연구서들은 복도의 캐비넷에 유배되기를 반복했다. 버리지 못하는 책과 버릴 수 없는 서적은 구분되지 못한 채 나의 관심에서 차츰 멀어져 갔다.

21세기 초 더 이상 독서 만능주의적 명제도 사라지는 현실이 아닌가. 아니 새로운 독서의 필요성으로 대체될 미래가 바로 지금의 과제는 아닌지. 이전처럼 책을 읽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수의 임무가 오늘 날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 서재의 무용성까지 이어진다고 걱정한다면, 지나친 우려일까. 그렇지 않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독서는 서재는 필요한 것이다. 굳이 많은 이유를 여기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말하면, 지식과 사람 그리고 낭만적



여유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인간이 있었으며, 있으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구실 서재가 있는 곳이 건물의 이층이지만, 여름날 모기를 피하기 위해 설치된 방충망마저 일찌감치 치워버렸다. 열린 공간이 나에게는 좋기 때문에 어지간한 추위가 아니면, 늘 창문을 열어둔다. 가끔 창문을 통해 들어온 새와 함께 하기도, 가을철이면 선명한 색깔의 단풍잎들이 창문턱 위에 연구실 바닥에 놓이는 행운도 얻을 수 있었다. 봄꽃을 비롯해서 장마철 빗소리, 바람소리, 가을날 풀벌레 소리도 가까이 할 수 있기에 … 해서 이를 소재로 몇 편의 시를 쓰기도 했다. 솔직히 말해서, 책을 읽은 시간보다 읽기 전후에 일어나는 명상(Meditation)의 시간이 훨씬 많았다. 명상과 허구의 세계에서 헤매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불현듯 헤세

(Hermann Hesse)의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일생 동안 아무 것도 베울 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일생을 소진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것 같다. 그렇지만, 때론 장기간 출장이나 며칠 동안 연구실을 비울 경우에는 문을 닫으면서, “잘 다녀 오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곤 했던 곳이다. 나의 서재는 그만큼 정든 곳이다. 하나, 회자정리(會者定離)가 인간의 운명인 것처럼 이젠 연구실 서재를 떠나야만 한다. 새롭음을 위한 이별은 아름다움이 아닐는지, 애써 위로해 본다. 아니, 지금에 이르러서 기만히 생각해 보면, 서재는 책을 쌓아두고 읽고 생각하고 글쓰기를 하는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닫힌 공간은 아니다. 나름의 결론은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자신이 저술한 책을 하나하나 채우면서, 자신의 지식이나 전문성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 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결손의 말이 아니다. 다른 저서의 저자처럼 연구와 정정이 살아 숨 쉬는 공간과 시간이어야 한다는 바램이다.

교수의 서재는 대학의 도서관이든 연구와 교육을 위한 기본 시설이라 해서 ‘대학의 심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달리 보면, 시간과 공간을 채워가는 열정 속 무시간성으로 연구실의 서재를 여태까지 이해해 왔던 것 같다. 그러나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일컬어지는 현재로부터 다가올 미래에는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어 갈까? 아니, 문학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교수의 연구실이나 서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다시 30년 후 방문하여 도서관이나 교수의 연구실을 볼 수 있다면, 분명 나의 기대와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을 것이다.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신 교수님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가을에 떠나는 낭만가득 문학기행 도서관과 함께 다녀왔어요~!

눈이 부시게 푸르른 화창한 가을날, 도서관에서는 [ACE+] 책읽는 대학사업의 일환으로 문학기행을 떠났습니다. 김동리·박목월 작가를 주제로 한 경주기행, 그리고 윤이상, 박경리 작가를 주제한 통영기행까지..

문학적 배경이 되는 장소와 작가를 연결하여 작품의 산실이 되어진 장소에서 만나는 작가들의 모습은 어땠을지 문학기행에 참여한 학우 2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yeongju & Tongyeong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노을(이하 박) 안녕하세요. 저는 나노에너지공학과 3학년 박노을입니다

김현채(이하 김) 저는 현재 아동가족학을 전공한 4학년 김현채 학생입니다. 2017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가 되었네요.

도서관 문학기행은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박 저는 현재 장전캠퍼스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친한 동기가 나노대 도서관에서 문학기행 관련 정보를 알려주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 저는 2017년 한 해, 부산에서 보내는 게 마지막 해입니다. 처음에 부산대 왔을 때 부산을 중심으로 작은 도시들을 다 돌아보고 가자는 계획을 세웠는데, 바빴던 학교생활로 인해 생각보다 많이 못 가봐서 아쉬웠습니다. 그러던 중 도서관 공지사항을 보다가 통영문학기행을 보게 되었습니다. 통영은 그동안 가본 적이 없었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 문학기행의 일정을 확인해 보닌깐 흥미로울 것 같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자고 생각하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기행에서 어떤 점이 가장 좋았나요?

박 저는 대릉원에 도착하여, 역사해설가 분의 강의내용이 가장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신라의 역사에 대하여 몸으로 설명해주셔서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앞선 활동들에서 시간이 지연되어 선생님의 설명을 끝까지 듣기 못한 것이 아쉽네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로 찾아뵙고 감사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처음 통영에 도착해서 윤이상 박물관에 갔을 때, 박물관 큐레이터께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윤래 박물관에 가면 쑥! 쑥! 보면서 지나갔었는데 내가 그 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쓴 박경리 선생님의 기념관에도 갔었는데, 기념관을 둘러본 후, 박경리 선생님이 계시는 묘지로 가는 길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통영 앞바다가 고용히 펼쳐지고, 양쪽으로 푸른 산들이 솟아있는 그 풍경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내가 과연 도서관 예술* 문학 기행이 아니었다면 이런 곳을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도서관의 문학기행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고, 공짜로 여행도 갔다 왔고, 출발 전에 두둑한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신 것에 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깜짝 퀴즈선물과 참여기념품도 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문학기행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 경주여행이라 하면 경치가 좋은곳을 찾아간다든지, 맛집 여행을 기획했을거 같은데, 이번 여행에서는 경주를 문학의 테마로 여행하게 되니 내가 여행을 기획했다면 가보지 못했을 곳을 다니게 되어 좋았습니다. 또한 ‘여행의 테마가 문학이 될 수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김 통영이라는 작은 도시를 다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구도 적은 작은 도시에서 문학, 예술인들이 다수 출출될 수 있었던 게 놀라웠고, 예술이 발달한 도시는 부유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통영이 한국의 르네상스 지역이라는 말을 듣고 신기했습니다. 이번 문학기행을 통해 통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예술* 문학적 교양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학기행에서 있었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박 김동리, 박목월 문학관에서 큐레이터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퀴즈에 참여하여 문제를 맞춰, 소정의 상금이 들어있는 스타벅스 카드를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김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에 들어갔는데, 제가 앉았던 테이블에서 도서관 관계자님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한 도서관 관계자님께서 “도서관에 참여하고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있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곳을 떠나기 전 다양한 책을 많이 읽고 자자라고 목표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중에 요즘에 도서관 공지사항을 확인하는데 ‘이달의 추천도서’가 제 눈에 띄어서 가장 먼저 “프루스트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방법”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앉아계셨던 관계자님께서 “말씀

하신 분이 그 도서 추천하신 거예요.”라고 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식사하는 데 시간이 즐거웠고, 제가 그때 그 책을 얼마 읽지 않아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웠지만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대해 “이렇게 또 도서관과 인연이 있구나.” 혼자 나를 생각하면서 피식 웃음이 났었습니다.

끝으로 도서관에 하고 싶은 말이나 앞으로 부탁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박 문학기행에서 방문하는 각 장소별로 주어지는 시간이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기행에서 방문한 곳의 정보를 더 알아보고, 주변 경치도 둘러볼 수 있는 시간 말이죠. 저는 이번 문학기행에서 재밌고 기억에 남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다음 일정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 일년에 한번 뿐인 행사라고 하셔서 그 부분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경주를 다녀와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었는데 프로그램이 일 년에 한번 기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를 놓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워요. 이런 프로그램은 더 자주 기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대학을 다니다 보니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사색과 글쓰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은 생각을 통해 학생들 개개인이 자신만의 문체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생각을 창조해내는 사고력이 중요한데, 현실적 교육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달의 추천도서를 읽고, 학생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공감적 글쓰기나 비평적 글쓰기를 하고, 자료를 뽑아서 서로 토론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글쓰기 모임 같은 걸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쓰기 모임 종료 후, 그것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주면 도서관과 학생들 간의 좀 더 활발한 참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가까운 지방 소도시들을 문학예술 기행으로 찾아 떠나는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쓸신잡2

잡학박사 들의 책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예능

<알쓸신잡>이 시즌2로 돌아왔다.

시즌1에서부터 큰 화제가 된

출연진들이 추천한 도서목록과 더불어

서점가에는 잡학박사들의 추천도서와

저작 역시 큰 열풍을 불러왔다고 한다.

그 열풍이 아직까지도 뜨겁다고 하여

새로 돌아온 <알쓸신잡2>를

2배로 더 즐길 수 있도록 시즌 2의

새 얼굴 잡학박사들과 그들의

집필도서를 소개한다.



| 유시민 |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대한민국 대표 글쟁이, 유시민 작가의 글쓰기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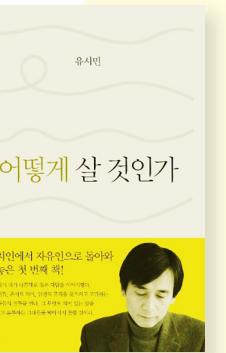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화려한 언변과 글쓰기 실력의 소유자 유시민. 그런 그가 글쓰기에 대해 집필한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은 30년 동안 쌓아온 자신의 글쓰기 영업기밀을 가감 없이 풀어놓은 책이다.

알쓸신잡2의 뉴페이스 장동선 박사님도 이 책을 읽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 자칫 어렵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글쓰기 원칙과 이론을 쉽고 흥미진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고전작품부터 현법 재판소 결정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며 잘 쓴 글과 못 쓴 글을 비교하고 있어, 유시민의 날카로운 시각과 논리 정연한 분석이 단연 돋보이는 책이기도 하다.

책에 소개되어 있는 다양한 예문을 읽는 것으로 글에 대한 안목은 물론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책이니 읽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 하다.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08 유59○

| 유시민 | 어떻게 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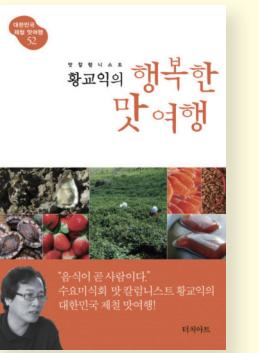
모두의 고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유시민이 되짚어본다!

정치인 유시민에서 자유인 유시민으로 돌아와 내놓은 책이다. 정치인 유시민으로 살아보면서 가려져 있었던 유시민의 사람, 자연, 사회, 역사에 대한 생각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시기의 개인적 사회적 정치적 경험과 그에 대한 생각을 단편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반 시절의 일부부터 대학 시절 야학 교사 활동을 거쳐 소위 ‘통합진보당 사태’와 18대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감정과 생각이 자신의 삶을 지배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직업으로 서의 정체를 그만두기로 한 이유,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고민과 그리고 자유인이 되어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지 솔직하고 소박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삶에 대한 고민, 개인과 사회, 자유와 공동선, 진보와 보수, 신념과 관용, 욕망과 품격, 사랑과 책임, 열정과 재능 등에 대해 깊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놓치고 잊어버린 것은 없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4 유59○

| 황교익 | 황교익의 행복한 맛 여행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의 ‘먹거리 여행기’

알쓸신잡에서 맛에 대한 지식을 담당하고 있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그가 들려주는 1년 사계절 먹거리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계절감이 뚜렷하고, 여행하기에도 좋은 지역의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미 책으로 출판되기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리에 연재되던 칼럼을 엮어서 출판한 것이라고 한다. 황교익의 칼럼을 좋아하던 독자들도, 또 책으로 처음 접해보는 독자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맛과 지역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1년 사계절, 우리나라의 땅과 바다에서 생산되는 음식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어 큰 의미가 있는 책이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흥망성쇠의 변화를 겪고 있는 갖가지 식문화에 관해 다루고 있는 책으로써, 읽다보면 우리나라의 식문화에 대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겸한 다양한 지식도 쌓을 수 있다.

이름다운 대한민국의 자연이 주는 절경과 더불어, 그 속에 녹아있는 삶 그리고 음식을 찾아 함께 맛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4 유59○

| 장동선 |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차세대 신예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첫 저서

알쓸신잡의 새 얼굴 장동선 박사의 뇌에 관한 책이다. 장동선 박사는 청소년 시절 ‘나는 누구인가?’, ‘나를 둘러싼 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가?’, ‘왜 이해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인간의 뇌와 행동의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재미에 빠져들었다고 하며 그 답을 ‘사회적 뇌’에서 찾았다고 한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전문용어와 복잡한 운동으로 둘러싸인 뇌의 비밀을 한 꺼풀 벗겨줄 뿐만 아니라, ‘뇌과학’이라는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주제를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뉴욕에 거주하던 유색인 종으로서 마주했던 문화적 충돌과 에피소드를 통해 경쾌하게 풀어내고 있다. 더불어 45건의 실험 사례들을 적절하게 인용해 주장의 신뢰를 높였으며 어려운 뇌과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뇌의 본질에 닿고 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 자신의 또 다른 뇌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장동선 박사의 뇌에 관한 즐거운 수다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12.82 C456m한A

| 유현준 |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건축이라는 눈을 통해 세상을 보다!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자유롭게 종횡무진 다양한 분야를 휘젓고 다닐 수 있을까? 바로 알쓸신잡2에서 새로운 건축 박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유현준 교수의 책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이야기다. 이 책에서 유현준 교수는 도시 속에 담겨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과학을 읽어내고 있다. 알고 보면 하버드, MIT, 연세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각종 건축상을 훨씬 화려한 그의 능력을 토대로 도시와 인간의 삶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준다. 평소에 잘 알기 어려운 분야인 건축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들면 ‘도시와 인간이 공진화’ 하고 있다는 시각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다.

작은 골목부터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이르기 까지 책을 통해 함께 거닐어 보는 건 어떨까? 그와 동시에 그 속에 담긴 우리의 삶과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3층 자료관
LDM 823.914 P367d한A

출처 | 아르테출판사 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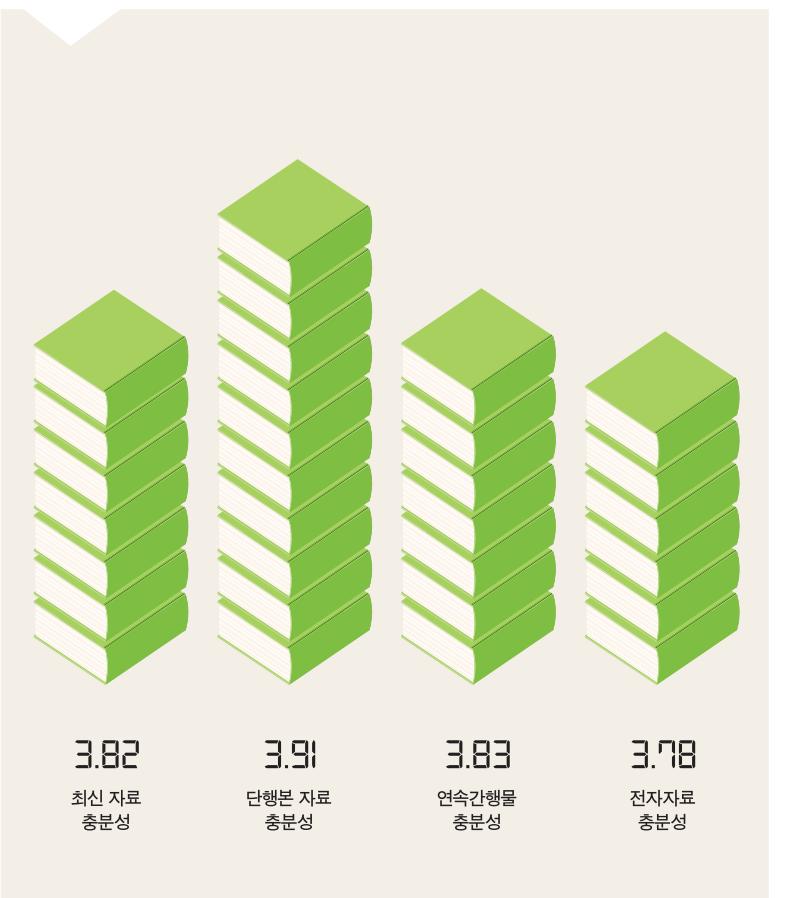
2017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로 알아보는 도서관에 대한 여러분의 만족도는?

도서관에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 까지 대학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약 10일간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도서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소장자료, 자료이용, 홈페이지, 이용자서비스, 도서관 시설 및 환경 등의 전반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문항으로 진행되었다.

총 참여인원은 학부생 214명으로 남성이 42%(90명), 여성이 58%(124명) 참여하였으며, 3학년이 27.5%(59명)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장 많이 참여한 대학은 공과대학으로 23.83%(51명)이 참여하였으며, 설문조사 문항별 만족도 현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소장자료 만족도 (5점 만점 중 평균 3.83점) 그림 1

도서관 소장자료의 만족도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단행본 자료 부분이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이 주제분야의 단행본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나, 전자자료의 경우 단행본과 비교하였을 때 자료의 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최신자료와 연속간행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전자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끌어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이용 만족도 (5점 만점 중 평균 4점) 그림 2

도서관 자료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를 통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가를 구성해놓았는지, 그리고 책이 올바르게 꽂혀 있는지, 대출반납이 정확한지의 도서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타기관 및 캠퍼스 간 자료이용의 경우 만족도가 3점대로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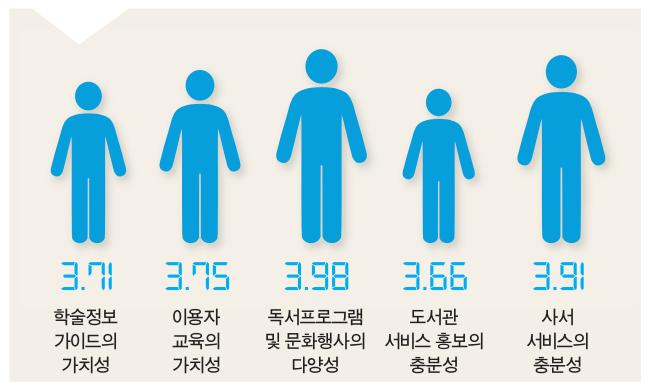
도서관 홈페이지 만족도 (5점 만점 중 평균 3.9점) 그림 3

그림 3을 통해 도서관 홈페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자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검색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4.06으로 나타났으며, ‘질의응답의 용이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3.62로 나타나 질의 응답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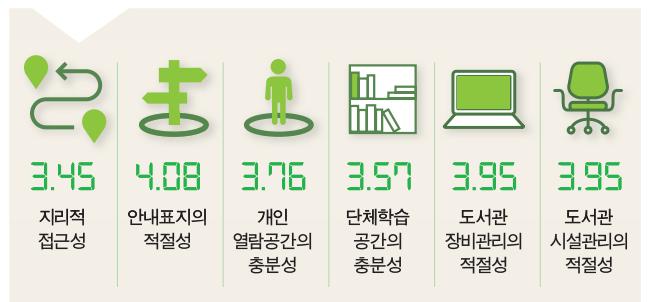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 중 3.8점) 그림 4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의 만족도 중에서는 ‘독서프로그램 및 문화 행사의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가 3.98로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저자와의 만남, 다양한 ACE+사업, 도서구매지원 이벤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를 통해 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용자의 문제해결에 대한 사서서비스 만족도가 3.91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6개의 주제관을 통한 전문적인 사서서비스에 이용자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학술가이드, 이용자교육의 가치성과 도서관 서비스 홍보에 대한 충분성은 낮게 나타나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도서관 시설 및 환경 만족도 (5점 만점 중 3.79점) 그림 5

도서관 시설 및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9점으로 5가지의 문항 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안내표지에 대한 적설성”은 4.08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리적 접근성은 3.45로 매우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단체학습공간도 3.57로 다른 문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도서관에서는 2017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나감으로써 이용자들이 좀 더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꼭꼭 숨어있는
보석같은 책을 소개합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저자 키타가와 에미 | 출판사 놀 | 발행년 2016 | 페이지 224p

꿈이나 적성에 대해 채 고민해 보지도 못한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입사 반년 된 신입사원 아오야마. 취업에 성공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계속되는 야근과 휴일근무, 그리고 일중독 부장의 구박에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었다. 회사를 쉬는 날에는 지쳐서 잠만 자느라 친구들을 만날 시간조차 없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역에서 정신을 잃어 선로에 떨어질 뻔한 아오야마를 누군가 구해 준다. 그 남자는 아마모토. 자신이 아오야마의 초등학교 동창이라 주장하는 그는 이후로 계속 찾아와 용기와 위로를 준다.

아오야마의 회사생활은 아마모토의 도움으로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최악으로 치닫는다. 그 와중에 아오야마는 아마모토가 정말로 초등학교 동창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 게다가 아마모토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 기사까지 발견한다. 대체 이 미스터리한 친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지옥이나 마찬가지인 아오야마의 회사생활은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Review 01

우리에게도
달라질
미래가 있다”



사서 김 송 아

‘누구나 가슴에 사표 하나쯤 있잖아요’라는 말은 직장인 99.9%가 공감하는 얘기이다.

막연하게 대학생때는 어디든 취업만 하고 싶고, 어디든지 내자리가 있는 곳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였다.

주인공인 아오야마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야근에도 실직은 최하였고, 매일매일 괴롭히는 상사와 나와 달리 팀내 최고 에이슨인 직장동료와의 비교까지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그에게 회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텨야 하고 절대 나갈 수 없는 곳이기에...

막다른 골목 끝에서 그에게 찾아온 정체불명의 동창과 함께 달라지는 나날들과 함께 우리에게도 달라질 미래가 있다는 용기와 위로를 주고 있다. 책을 읽으면서도 친구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현실감 있는 스토리이다. 무작정 취업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고민한다면 좀 더 행복한 직장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라도 술술 읽기 쉬운 이 책을 추천한다.

한줄평 - 학생 시절때는 취업만 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직장생활 전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보자!!

Review 02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사서 박 선 화

일단은 제목이 시선을 확 사로잡는 책이다. 뭐지? 회사를 관두고 오겠다고?! 나 역시 이 제목에 이끌려 책을 단숨에 다 읽어냈다. 매일 계속되는 야근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실적.. 게다가 안하무인 상사에 알미운 직장동료까지! 그럼에도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가는 주인공 아오야마가 안타까우면서도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쓰쓸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다가온 정체불명의 동창과, 그 동창의 숨겨진 가슴 아픈 사연. 그 사연을 추적하면서 자신의 답답한 현실에 정면으로 마주하고 돌파하게 되는 아오야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진짜 주인공 아오야마처럼 회사 관리를 실천으로 옮길 수는 없지만, 또 우리의 일상에 미스테리한 동창생이 찾아와 구원해줄 일 또한 없을 테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신만의 무언가를 이 책을 통해 찾아보면 어떨까?

다만 개인적으로 이야기의 깊이가 좀 덜하고 가벼운 느낌이 들었고, 미스테리한 동창생의 등장이 그다지 긴박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지는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당당히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삶을 찾아내는 아오야마의 꿈같은 결말보다는 정말로 회사를 관둘 수 없는 독자들을 위한 좀 더 현실적인 결말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물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천!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라면 현실이 얼마나 넉넉한지 예방주사 차원으로 가볍게 읽어보기에 좋은 책으로 추천한다.

한줄평 - 우리는 관둘 수 없는 현실! 소설 속에서라도 통쾌하게 대리만족해 보는 건 어떨까?

Review 03

청춘들이여!!
꿈꾸라!!
그리고 도전하라!!



사서 강 승 일

대학생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취업이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에 맞는, 그리고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나는 과연 어떤 길을 가야할것인가에 대해서 한창 망설이고 있는 당신이라면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읽어야 한다.

제목부터 재미있다. 책 자체도 그리 두껍지 않고 내용도 가벼워서 금방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마냥 가볍기만 한 책은 결코 아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자신의 꿈이나 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게 된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 회사생활에 대한 로망을 철저히 깨부순다는 것이다. 주인공이 처한 현실은 판타지가 아니다. 100% 리얼이다. 이 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이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스로가 가장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뛰는 자리에 나는 자가 있다. 그리고 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자체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할 것이다. 청춘들이여!! 꿈꾸라!! 그리고 도전하라!!

한줄평 - 소설이 아닌 현실! 그 자체! 꿈을 잃은 이 시대의 청춘들을 위한 필독서

시선집중

2017년도 도서관 소망트리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연말을 맞아 각 캠퍼스 도서관 4곳(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 나노생명 과학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 로비에 소망트리를 설치하였다. 2017년 12월 4일부터 2018년 1월 12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소망트리는 교내구성원 및 도서관을 출입하는 이용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트리와 함께 비치되어 있는 엽서에 자신의 소망을 담아 트리에 장식하면 된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ACE+] 2017년 저자와의 만남 개최 : 공지영 작가, 주호민 작가



도서관에서는 독서의 계절 기을 맞아 [ACE+] 2017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2017년 10월 20일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도가니” 등으로 유명한 공지영 작가가 방문하여 “너를 응원하는 한마디”라는 주제로 대학생 청춘들에게

따뜻한 공감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국제관 B101호 대강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공지영 작가의 저서 200부를 선착순 무료로 나눠주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공지영 작가와의 만남에 이어 2017년 11월 29일 “신과 함께”로 유명한 주호민 웹툰작가가 방문하여 “상상력은 어떻게 만화가 되는가”를 주제로 특강이 펼쳐졌다. 이번 강연을 통해 주호민 작가는 만화를 어떻게 기획하고 연재하는지, 만화 하나를 그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사전 조사, 정보 검색이 필요한지, 자신과의 싸움 등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는 도전 정신을 강조해 참여 학생들의 많은 웃음과 공감을 받았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20

[ACE+] 2017 도서관 공모전 시상식 · 도서관 송년 감사 음악회 개최



도서관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7일부터 21일 까지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학문의 나래를 펼치다’라는 주제로 ‘제5회 부산대학교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5회째 개최되는 저작물 전시회는 교수들의 우수한 연구 업적과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 연구역량을 대내외에 알리고 연구와 교육 의욕을 높이고자 지난 2004년부터 시작돼 4~5년 간격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제5회 전시회 개막식은 7일 오후 4시 중앙 도서관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됐으며 총 5개 섹션으로 나누어 ● The PNU Best Teacher Award 2013~2016 ●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 2017년 수상자 및 학문분야 ● 부산대학교를 빛낸 PNU 교수들 ● SCI급 논문분석으로 보는 PNU 교수진의 연구역량 ● 부산대학교의 쾌거 2013~2016 등을 주제로 각각 펼쳐졌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대 교수 및 연구진이 발간한 단행본 및 연구실적을 중심으로 810점이 선보이고,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SCI 및 유수 학술지에 등재된 논문 분석 자료와 그림·조형물 등 작품 전시와 공연영상·강연영상 자료 등이 전시되었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309

Special Focus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를 기증해주세요.

1인 1책 기증



작은 정성이 하나하나 모여 커다란 기쁨이 되듯,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 권의 책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꿈과 희망과 이상이 됩니다.

기증의사통보
TEL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자료기증신청서’ 작성
‘도서관 홈페이지-자료기증’
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방문
(중앙도서관 자료개발팀)

개인 소장 자료 기증



교수님 또는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장서를 기증해주시면
도서관 학술정보를 축적하여 나만의 소중한 자료에서 모두의 자산으로 가꾸어 드립니다.

기증의사통보
TEL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자료기증신청서’ 작성
‘도서관 홈페이지-자료기증’
에서 다운로드

방문 기증 또는 택배 송부

주소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자료개발팀

발간자료 기증



대학 내 기관(연구소)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도서관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대학 간행물로 등록하여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고
국내·외 대학도서관간 상호 자료 교환으로 우리의 지식정보를 대외적으로 알립니다.

기증의사통보
TEL 051-510-7600
donation@pusan.ac.kr

도서관 방문
(중앙도서관 자료개발팀)

국내·외 기관과 자료 교환